



대통령과 함께 심는 희망의 나무

식목일 나무심기

푸른숲선도원은 매년 식목일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식목행사에 전국의 청소년 대표로 참가하여 대통령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며 숲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또한 식목주간에는 산림청, 국립림관리소 등의 협조를 받아 국유림, 학교 등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 2006년 활동내용

- 제61회 식목일에는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시슴마을에서 경기도 여주 상품초등학교 54명의 푸른숲선도원이 대통령과 함께 희망과 미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 4월 14일(금)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122명의 푸른숲선도원들이 5년생 전나무 4,000여 그루를 심고,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주었습니다.